

## 붙임 1. 전시 개요

기간 2017년 12월 19일(화) ~ 2018년 4월 15일(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예르미타시박물관, KBS

협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미디어협력: KBS미디어, 동아일보

미디어후원: 채널A, 네이버

예매: 인터파크 티켓

전시문의: 1688-0361

누리집: [museum.go.kr](http://museum.go.kr) / [russia2017.modoo.at](http://russia2017.modoo.at)

관람시간: 월/화/목/금 10:00-18:00, 수/토 10:00-21:00, 일/공휴일 10:00-19:00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

버스 400번, 502번 국립중앙박물관 하차

### 입장료

구분	개인	단체(20인 이상)
성인 (만24세 이상)	6,000원	5,500원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5,500원	5,000원
초등학생	5,000원	4,500원
유아 (만 48개월 이상)	4,000원	3,500원
65세 이상 (경로우대)	4,000원	3,500원
무료 관람	48개월 미만, 영유아 단체 인솔자(교원 1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급~3급) 본인 및 동반 1인 상이군(1급~3급) 본인 및 동반 1인 군인, 경찰, 소방관 (본인) 법정 차상위계층 (본인)	
할인	다둥이카드 소지자(자녀수 수에 따라 20%~50%) 장애인 4급~6급 본인 및 동반 50% 예술인 패스 본인 및 동반 2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5시부터(문화가 있는 날) 50%	

※ 무료, 할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지참 필수

큐레이터와의 대화: 매주 수요일 19:00-19:30 / 기획전시실

전시 해설: 평일(3회) 오전 10시30분, 11시30분, 오후 3시



토/일요일, 공휴일(1회): 오전 10시30분

전시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시 누리집 참고

## 붙임 2. 전시구성 및 주요 작품



### 1부. 고전주의, 위대한 세기의 미술 Classicism: Art of the Great Century

17세기의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통치 아래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세기'로 불리는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던 젊은 프랑스 화가들이 돌아와 왕실 주도의 화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편적인 원리와 질서, 안정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양식이 17세기 프랑스 화단을 주도했습니다. 평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이상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렸던 르 네브 형제의 작품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니콜라 푸생, <십자가에서 내림>, 1628~1629, 캔버스에 유채,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클로드 로랭, <이탈리아 풍경>, 1648, 캔버스에 유채,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 2부. 로코코와 계몽의 시대 Rococo and the Age of Enlightenment

18세기 초, 루이 14세의 사망 이후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 속에서 야외에서의 화려하고 우아한 연회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카데미의 화가들도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면서 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등 점차 새로운 경향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한편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부르주아 계급의 가치를 담은 풍속화나 정물화, 초상화가 유행했고, 새롭게 풍경화에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프랑수아 부세, <다리 건너기>, 캔버스에 유채, 1730년대 말,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위베르 로베르, <콜로세움>, 캔버스에 유채, 1761-1763,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 3부. 혁명과 낭만주의 시대의 미술 Art in the Age of the Revolution and Romanticism

19세기로 접어들어 프랑스 미술은 나폴레옹의 통치와 일련의 혁명을 겪으며 변화의 세기를 맞이합니다. '신고전주의'를 계승한 화가들은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발전시켜나갔고, '낭만주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문학이나 신화, 동방의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새로운 주제를 찾기도 했습니다. 장바티스트 카미유 코로나 외젠 부댕과 같이 야외로 나간 화가들은 변화하는 빛과 대기에 관심을 두면서 이후 인상주의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장오귀스트도미니크 앵그르, <니콜라이 구리에프 백작의 초상>, 1821, 캔버스에 유채,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폴 들라로슈, <티베르 강에 빠져 죽은 기독교 순교자>, 1853, 캔버스에 유채,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귀스타브 쿠르베, <죽은 말이 있는 풍경>, 캔버스에 유채, 1730년대 말,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장바티스트 카미유 코로,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소녀> 캔버스에 유채, 1865~1870,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 4부. 인상주의와 그 이후 Impressionism and Beyond

19세기 말 이후 고전적 예술 양식과 완전히 결별한 혁신적인 화가들이 등장했습니다. 1880년 이후 모네는 대상의 형태보다 빛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하는 색채의 표현에 더욱 집중했고, 폴 세잔은 자연을 본질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는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상징주의 화가 모리스 드니,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원시주의 화가 앙리 루소, 야수주의 화가 앙리 마티스는 인상주의 이후의 혁신을 이어나갔고, 이들은 20세기 미술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클로드 모네, <지베르니의 건초더미>, 1886, 캔버스에 유채,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앙리 루소, <방브 수문 좌측의 방어 시설 경관>, 1909, 캔버스에 유채,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
	

## 참고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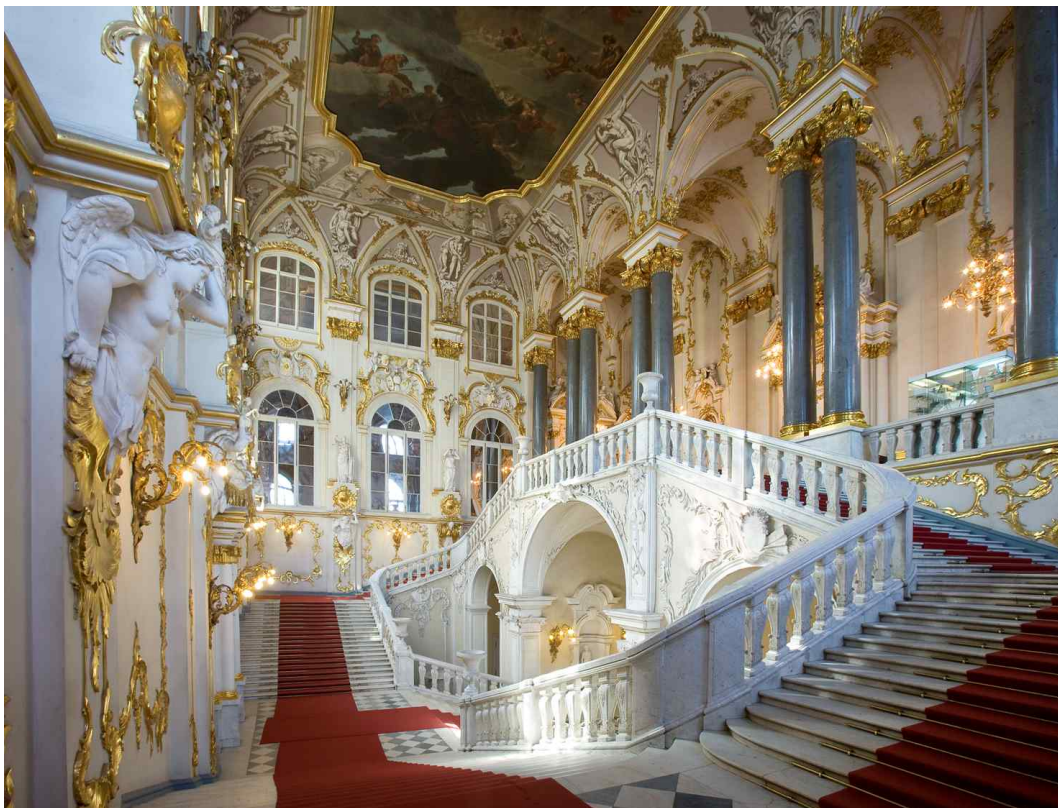
### 에르미타시박물관(겨울 궁전) 전경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photo: Pavel Demidov)

## 참고 사진 2

### 겨울 궁전 내부 “대사(大使)의 계단”



©The State Hermitage Museum, Saint-Petersburg, 2017(photo: Pavel Demidov)